

아동이 지각한 다면적 생활만족도 및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김 은 교(가톨릭대학교 석사과정) · 문 혁 준(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성원으로써 독립된 개체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그 중점을 두고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다면적 생활만족도, 자기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들이 현재 지각하고 있는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자기조절능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 그들이 속해있는 환경 안에서 균형적인 만족을 이루는 동시에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켜 보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3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3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332명의 초등학생 중 5학년은 137명(41.3%), 4학년은 101명(30.4%), 6학년은 94명(28.3%)순 이였고, 남자는 177명(53.3%), 여자는 155명(46.7%)이다. 아동의 다면적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이정미, 이양희(2005)가 번안, 수정한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를 사용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은 허정경(2003)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것을 25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최현주(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F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보다는 여아가, 학년은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하보다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일 때 다면적 생활만족도 및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아동이 스스로 생활에 만족한다고 지각할 때 자기조절력은 물론이고 학교생활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적응도 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면적 생활만족도 중 친구를 제외한 학교, 가족, 환경, 자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자기조절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동기 및 행동적 성취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및 부모-교사 상담, 교사 교육 그리고 아동에게 있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꾸준한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재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